

CBMC 기독교실업인 포럼 설교

# AI 시대에 기독교실업인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혁신 도구

브살렐과 오홀리압에서 AI 혁신 도구로  
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기술의 신학

출애굽기 35:30-35,36:1

설교자 한진준 목사 | 엘림G선교회

성령 충만 + 기술 탁월 = 하나님 나라의 혁신 청지기

**30.**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

**31.**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

**32.**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

**33.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**

**34.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 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**

**35.**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  
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 
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 
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  
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 
하셨느니라

**1.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**

서론

## 포럼 오프닝 |

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 
지금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입니까?  
그리고 그 도구를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?

### 3,500년 전의 질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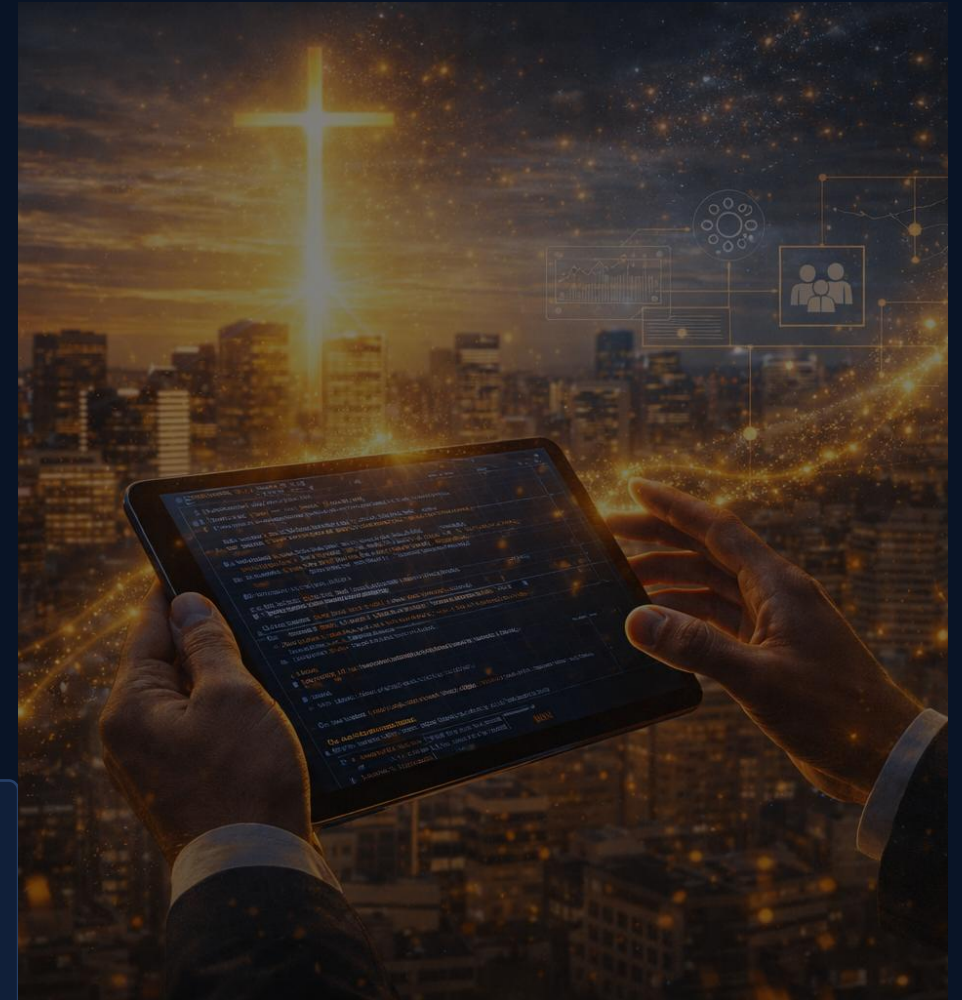
“누가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느냐?”  
하나님은 사람과 기술을 세우셨습니다.

### 오늘의 질문

“AI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혁신 도구를 다룰 것인가?”

### 포럼의 대답

그 부르심은 바로 현장의 기독실업인에게 주어졌습니다.



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기술과 영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.

본문

## 본문이 말하는 세 개의 선언

### 선언 1 | 성령과 기술

“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”

출애굽기 35:31

### 선언 2 | 교육과 전수

“가르치는 마음을 주사”

출애굽기 35:34

### 선언 3 | 순종의 기준

“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”

출애굽기 36:1



성령 충만 + 기술 탁월 = 하나님 나라의 혁신 청지기

능력 · 협업 · 청지기

역사적 배경

# 성막과 혁신의 맥락

## 1. 혼돈 속의 설계

광야는 노예 백성이 국가 공동체로 전환되는 과도기였습니다. 하나님은 먼저 “만남의 장소”를 설계하셨습니다.

## 2. 불가능한 프로젝트

훈련된 장인 집단이 없던 백성에게 성막 제작은 거의 불가능한 과업이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셨습니다.

## 3. 하나님의 솔루션

성직자만이 아니라 평신도 장인과 실업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셨습니다.



여호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공간

인물

## 브살렐과 오홀리압 | 하나님이 세우신 두 리더



### 브살렐

유다 지파 | 수석 설계자 · 총괄 디렉터  
성령 충만, 정교한 설계, 실행의 탁월함

### 오홀리압

단 지파 | 교육 디렉터 · 팀 빌더  
가르치는 마음, 팀 형성, 지식의 전수

왕족도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장인들. 하나님은 현장의 사람을 불러 성막을 세우셨습니다.

핵심 구조

## 오늘의 본론 | 세 가지 혁신 원리

1

하나님이  
기술을 주신다

능력의 신학

성령의 충만은 기술의 부  
재를 덮는 것이 아니라  
기술의 탁월함까지 일으  
킵니다.

2

하나님이  
팀을 세우신다

협업의 신학

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 
을 한 비전 아래 묶으셔  
서 성막을 세우십니다.

3

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 
행하라

청지기의 신학

강력한 도구도 목적을 결  
정하지 못합니다. 기준은  
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.

세 원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. 능력, 협업, 청지기가 함께 갈 때 비로소 “AI 시대의 성막”이 세워집니다.

능력의 신학

# 첫째 원리 | 하나님이 기술을 주신다

“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” | 출 35:31

**지혜**

AI를 언제, 왜 사용할지 아는 전략적 판단력

**총명**

AI 결과물을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통찰력

**지식**

AI 도구의 작동 원리와 활용법에 대한 전문 역량

AI를 두려워하거나, 무조건 거부하거나, 무분별하게 맹신하는 것. 이 셋 모두 지혜가 아닙니다. 성령의 지혜로 도구를 다루는 것이 소명입니다.



협업의 신학

# 둘째 원리 | 하나님이 팀을 세우신다

“또 그에게 가르치는 마음을 주사” | 출 35:34

## 브살렐의 역할

설계하고, 방향을 잡고, 정교한 품질을 책임집니다.

## 오홀리압의 역할

가르치고, 팀을 세우고, 공동체의 역량을 증폭시킵니다.

## 다양성 안의 통일성

유다 지파와 단 지파처럼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이 하나의 비전 아래 연합할 때, 성막은 개인 작품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가 됩니다. AI 시대에도 신학자, 실무자, 교육자, 사역자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.



실천 연결

# 성막 역할과 AI 도구의 매칭

성막 역할	현대 AI 도구	사역 · 비즈니스 적용
금·은·놏 제조	Claude · ChatGPT 	설교 초안, 사업계획서, 보고서, 전략 메모 작성
보석 세공	Midjourney · Canva AI	선교 홍보물, 브랜딩, 웹 비주얼 제작
자수·직물 제조	Notion AI · Make	업무 자동화, 지식 연결, 운영 흐름 정리
나무 조각	GitHub · Netlify 	웹 인프라, 디지털 플랫폼, 사역 사이트 운영
정교한 일 설계	Claude Max · AI 에이전트	통합 운영, 리서치, 장기적 시스템 설계

핵심은 도구 이름이 아니라 성막적 목적입니다. 도구는 바뀌어도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.

청지기의 신학

## 셋째 원리 |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

“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” | 출 36:1

### PURPOSE 목적

AI를 쓰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.  
“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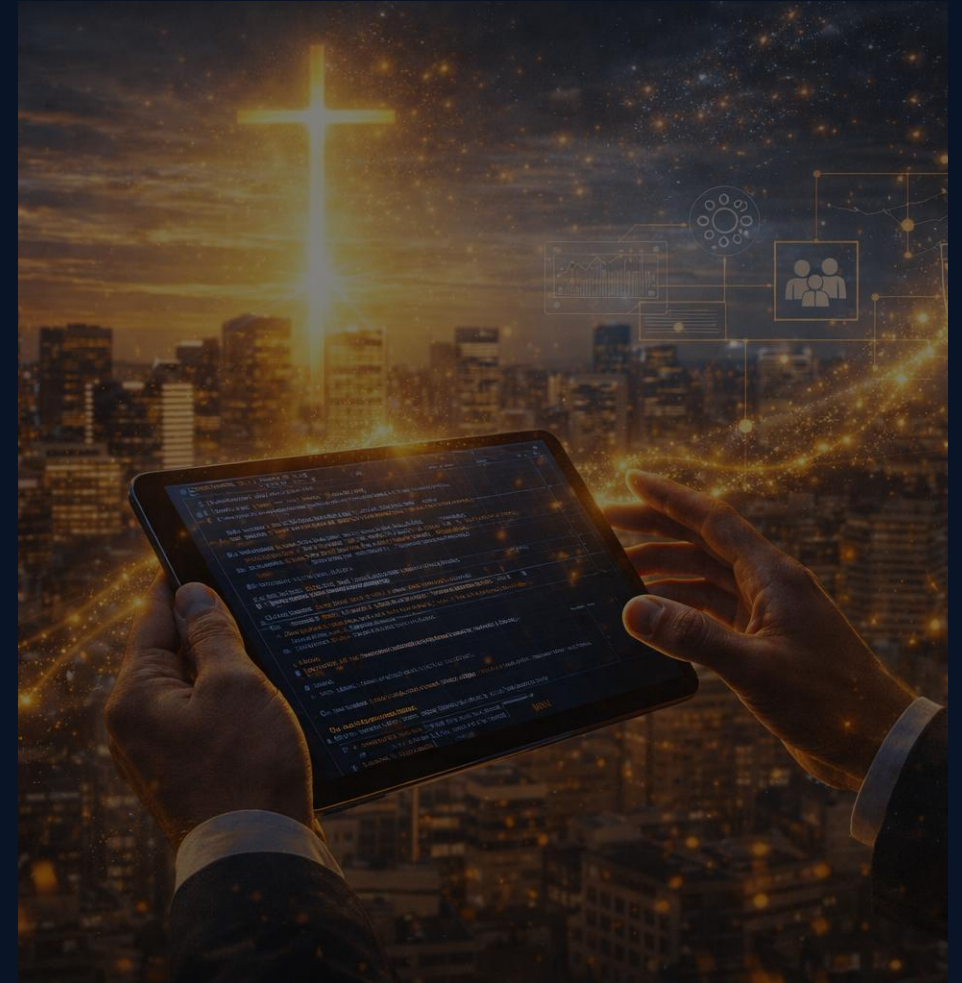
### PROCESS 과정

AI를 쓰는 동안 점검합니다.  
“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?”

### PRODUCT 결과

AI를 쓴 뒤 헌납합니다.  
“이 결과물이 예배가 되는가?”

도구가 목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. AI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청지기가 세웁니다.



포럼 토의

# 소그룹 토의 | 세 가지 질문으로 점검하기

## 토의 1 | 내면의 저항과 가능성

내 비즈니스 현장에서 AI를 “하나님이 주신 도구”로 받아들이는 데 어떤 저항이 있고, 어떤 가능성이 보입니까?

## 토의 2 | 나와 연결되는 도구

지금 나의 사역·비즈니스와 가장 직접 연결되는 AI 도구는 무엇입니까?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바로 시도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?

## 토의 3 | 방향성 재점검

“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”라는 기준으로 볼 때, 지금 유지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수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



진행 제안 | 질문별 나눔 후 공통 인사이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.

실천 가이드

## 오늘부터 시작하는 브살렐 프로젝트

1단계

### 성령 충만

AI 사용 전 목적 기도  
매일 "AI 활용 QT 노트"  
기록

2단계

### 기술 탁월

AI 도구 1개 깊이 마스터  
이번 주 프롬프트 5개 직  
접 작성

3단계

### 가르치는 마음

동료·이주민에게 전수  
AI 미니 워크숍 1회 진  
행

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었듯이, 오늘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"AI 성막 프로젝트"는 작게 시작하여 공동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.

광야에서 성막으로

**AI 시대는 광야입니다.  
그러나 광야는 언제나 성막이 세워지는  
곳입니다.**

하나님은 오늘도 브살렐을 찾으십니다.  
성령의 지혜와 기술의 탁월함을 함께 손에 쥘 혁신적  
청지기 말입니다.  
그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독교실업인에게 임  
합니다.

오늘의 결단 기도  
“세상의 강력한 도구를 가장 거룩한 목적을 위해  
청지기답게 다루게 하옵소서.”